

데이비드 A. 데실바 박사 , 히브리서, 12과, 히브리서 1 장 3절 1-25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반응

© 2024 데이비드 데실바 및 테드 힐드브란트

일부 학자들은 13장을 설교에 필수적이지 않은 일련의 덧붙인 지시 사항으로 간주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편집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권고는 실제로 이전 설교의 주장과 회중이 직면한 도전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여기서 청중에게 적대적인 사회에 맞서 끈기 있게 견디고 다가올 영원한 도시의 목표에 안전하고 지치지 않고 도착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지시를 제공합니다. 히브리서 13:1-21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반응을 설명합니다.

euarestos라는 용어와 관련된 단어로 주제적 일관성을 부여합니다 .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예배함으로써 감사를 표합니다. 이 동일한 용어는 이 권고의 마지막 부분인 13장 16절에 나타납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므로, euaresto .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텍스트의 설교 부분을 마무리하는 축복에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용문에서, 여러분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euareston , 그분 앞에서 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이 단어 그룹은 또한 히브리서 11:5-6을 떠올리게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죽음을 초월하는 데 필수적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계속 의지하며, 하나님께 충실하게 응답하는 결과입니다. 이 장에서 저자는 그리스도인 그룹 전체에서 연대와 지원을 유지하도록 권고하는데, 이는 개별 신자들이 아무리 소외되더라도 희망의 고백을 끈기 있게 고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는 청중들에게 이 세상에서

지위와 부를 추구하는 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권고하고, 청중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확립된 은혜의 관계에서 확고함을 찾으라고 권고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사는 법과 받은 혜택과 아직 오지 않은 혜택에 대해 하나님께 공정하고 합당한 보답을 하는 법을 보여줍니다. 설교는 저자가 축소된 의사소통 수단에 잘 맞는 자료로 끝맺습니다. 즉, 설교를 서면 의사소통의 형태로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는 특히 기독교 담론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알려져 있듯이 서신을 마무리하는 전형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저자는 신약에서 가장 심오한 의사소통 중 하나를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16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자는 수신자에게 몇 가지 핵심적인 행동과 지향을 권고합니다. 이 부분은 사랑과 애정과 관련된 어휘인 그리스어 어휘 *phil* 에 의해 관련된 단어를 통해 일관성을 제공합니다 .

이 어휘는 이 여섯 구절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1절에서 형제애를 의미하는 필, 아델피아. 2절에서 환대를 의미하는 필, 옥세니아 . 5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을 삼가는 아필 , 아르고로스 . 그래서 형제애를 계속하자고 읽습니다. 방문하는 손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환대를 통해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천사를 접대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를 그들과 함께 감옥에 갇힌 자로, 학대받는 자를 그들의 피부로 된 너희 자신으로 생각하라. 결혼은 모든 일에서 존중되어야 하며, 결혼 생활은 순수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서두의 네 구절에서 저자는 무엇보다도 형제 자매를 특징짓는 사랑인 필-아델피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형제 자매의 에토스는 그리스-로마 시대의 윤리적 작품에서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8권과 플루타르코스의

형제애 논설은 그리스 윤리학자들이 형제 자매가 서로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두 가지 예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그 더 큰 문화적 에토스에서 우리는 기독교 작가들이 자신의 독자들에게 강요하는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의 많은 요소를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협력, 연대, 소유물 공유는 모두 친족 사이에서 제정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물론,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것은 자연스러운 종류의 친족 사이에서가 아니라 공유된 이상과 헌신, 특히 그들이 모두 신에 의해 같은 가족으로 입양되었다는 믿음으로 관련을 맺은 사람들 사이에서입니다. 그룹인 필-아델피아의 상호 사랑과 지원, 그 수준의 강렬한 헌신, 친족 관계, 서로에 대한 투자는 그룹 외부의 상실된 지원 및 관계 네트워크를 보상하고 기독교인의 믿지 않는 이웃의 거부와 적대감의 침식 효과를 상쇄해야 했습니다.

저자가 여기에서 강조하는 두 번째 특성은 손님과 낯선 사람에 대한 사랑인 환대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첫째, 기독교 공동 예배의 존재 자체가 개인이 그룹의 모임을 위해 집을 열 의향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는 이것이 자신과 가족을 기독교 운동의 지지자로 식별함으로써 낙인을 찍기도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운동은 또한 여행하는 선교사, 여행하는 교사, 교회의 사절에 대한 환대에 의존했기 때문에 환대는 실제로 형제 사랑인 필과 아델피아와 함께 초기 기독교 그룹과 교회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 핵심 가치였습니다.

저자가 손님의 사랑을 유지하는 근거는 천사에게 무의식적으로 환대를 베푼 성경 이야기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히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롯이 주님의 천사로 밝혀진 낯선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푼 창세기 18장과 19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세 번째 명령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마치 그들과 함께 감옥에 있는 것처럼, 학대받는 사람들을 마치 그들의 피부처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서두 명령은 두 번째 구절에서 잊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예술적 균형을 제공하고 반복을 피합니다. 이 명령은 사회가 가장 표적으로 삼은 신자들에게 물질적, 정서적 지원의 형태로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룹이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지원을 동원할 의향이 있다면, 그룹의 모든 구성원은 사회가 나에게 무엇을 던지든, 나의 자매와 형제들이 나를 위로 없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윤리학에서 말했듯이, 형제 자매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비록 개인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자신의 고통이 덜어지기를 바라는 만큼 온 마음을 다해 용감하게 그들을 덜어주라는 권고를 뒷받침한다. 풍자 작가 루키아노스는 이러한 태도가 기원후 2세기에 기독교인들 사이에 철저히 확립되었다고 증언한다.

그의 풍자극인 '페레그리누스의 죽음'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자기들에게 보살핌과 지원을 확대했는지에 대한 창문을 열어줍니다. 이 이야기에서 페레그리누스는 기본적으로 쓸모없는 철학자이자 종교 행상인으로, 잠시 동안 기독교 교사이자 철학자로 가장하고, 교회에서 교회로 옮겨 다니며 기본적으로 잠시 동안 이 기독교 운동의 지원을 빌려갑니다.

페레그리누스가 감옥에 갇히자, 기독교인들은 그를 돌보고, 그와 함께 지내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다주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루시안은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첫 번째 입법자는 여기서 예수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모두 서로 형제 자매라고 설득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모든 것, 모든 물질적 재화를 차별 없이 멸시하고 그것들을 공동 재산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믿는 이들은 모든 면에서 힘을 합쳐서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하늘의 목표에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에 설교자의 청중은 설교자가 10장 32절에서 34절에서 회상했듯이, 가장 소외된 자매와 형제를 이해하고 돕고 지원하는 데 실패하지 않는

이러한 자질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에서 그는 그들에게 점점 더 그렇게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3.4에서 저자는 보여주지 말아야 할 사랑의 종류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서 결혼 생활에서의 충실함은 그룹 내에서 지속적인 가치로 촉구됩니다. 따라서 잘못된 형태의 사랑을 삼가함으로써 신자는 기독교 사업에서 가장 긴밀하게 서로를 지원해야 할 사람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근거는 이제쯤은 듣는 사람들에게 익숙할 것입니다. 간통자와 음행자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의 심판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전진에서 멀어지게 하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랑은 돈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설정에서 돈에 대한 사랑은 똑같이 파괴적이고 그리스도인의 헌신을 침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의 변태성 통제 기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10장 34절에서 듣는 사람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사회가 그들을 억누르려는 시도를 극복하고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자신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약탈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듣는 사람들에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라고 권고합니다. 저자는 자신이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나의 도움이시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저자는 단순히 탐욕을 피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리스도를 위해 잃었던 것을 보상으로 잃는 대가를 치르고 되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들이 지금 부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가 될 나라에서 더 좋고 오래 지속되는 소유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자는 또한 설교 전반에 걸쳐 듣는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강조합니다. 그들이 누리는 가장 큰 좋은 것 중 하나는 저자가 4장 16절에서

권고했듯이 순례 기간 동안 시기적절한 도움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자비를 받고 필요한 때에 돕는 은혜를 얻도록 하자.

그는 여기서 성경의 말씀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이 특권을 상기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저자는 여기서 신명기 31장 6절에서 언어를 가져왔습니다. 저자는 "너희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고 썼고, 하나님의 일인칭 진술로 수정했습니다. 이것은 설교 전반에 걸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청중들 곁에 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에 인도하신 여정에서 끈기 있게 버틸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려는 의지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저자는 시편 118편 6절을 낭송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특징짓습니다. 그는 듣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면화하고 스스로를 드러내기를 바라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주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씁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시편 기자가 모델로 삼은 자세를 취하는 청중은 여정에서 누리는 위대한 신의 도움을 감안할 때 인간의 반대에 직면해도 두려움을 계속 거부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동맹이기 때문에 현재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청중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감사와 충성심으로 끈기 있게 견디고 순종하는 제자도에서 계속 전진하도록 격려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은 그 여정에서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권면 블록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있어서 안정과 확고함을 주는 중심을 찾도록 하는 저자의 목표를 계속 충족시켜 주고, 따라서 서로와 예수님에 대한 의무와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성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8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 너희 인도자들을 기억하라. 그들의 행실의 마지막 결과를 살피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 동일하고 영원합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 사람들을 언급함으로써 아마도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된 이전의 전도팀을 언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설교자가 청중들에게 그들의 행동의 결과나 최종 결과를 고려하라고 촉구할 때, 여기서 ekbasis 라는 단어 는 죽음을 의미하는 빈번한 완곡어법인데, 그는 이 전도자들이 그 이후로 증인들의 큰 구름에 합류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더 많은 예를 남겼으며, 청중이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을 시사하는 듯합니다.

지도자들의 확고함과 믿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같은 신뢰의 대상인 예수의 흔들리지 않는 신뢰성에 의해 가능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이 유명한 진술은 신의 변함없음에 대한 냉정한 확언이 아니라 예수의 지속적인 신뢰성에 대한 확언입니다. 기원후 50년경에서 120년경까지 살았던 그리스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디오 크리소스톰은 불신에 대한 그의 연설의 맥락에서 도움이 되는 비교 텍스트를 제공합니다.

그는 인용문에서 인간에게는 불변성이나 진실성이 전혀 없다고 불평합니다 . 누군가가 운에 대해 말한 것은 인간에 대해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즉, 아무도 누구에 대해 내일까지 지금처럼 남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서로 맺은 계약을 위반합니다.

인간과의 이러한 불안정성 때문에 디오는 가능한 한 인간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더 신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격과 말이 시대를 거쳐 변하지 않고 오히려 변함없이 유지되는 한 사람이 있다고 확언합니다. 이러한 불변성 때문에 청중은 어제 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실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과 내일도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의 충실한 자들에게 존재하는 예수의 은혜는 수신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원천이 됩니다. 이것은 설교의 주요 요점 중 하나인 약속하신 분이 충실하거나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다양하고 낯선 가르침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음식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행을 따르는 자들은 그로부터 유익을 얻지 못했지만, 우리는 천막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먹을 권한이 없는 제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의 기초인 예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위해 안정적인 정박지를 확보하려고 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없는 것들과 대조됩니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 이 구절의 논증적 틀을 관찰해야 합니다.

저자는 13:9에서 다양하고 낯선 가르침에 휘말리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설명적인 근거를 추가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은혜로 굳건해지는 것이 좋은 일이지,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음식으로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는 두 번째 근거를 추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상의 천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먹을 권한이 없는 제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3:9의 수사적 목적은 신뢰의 안전한 기초, 즉 13:7에서 공동체의 창설자들이 항구에 도착하는 희망에 충분하고 적절한 닻으로 여겼던 예수를 위한 호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예수의 효과적인 중재와 은총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보다 오래되었거나 새롭거나 다른 모든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듣는 사람 자신의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그들을 끌고 갈 위험이 있으며, 확고한 고정된 장소에 머무르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회중의 직접적인 배경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설교자가 회중 주변에 떠도는 특정 가르침을 표적으로 삼았다면 그가 정확히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지 분별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은혜 관계의 상호성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안정성을

발견하는 것이 고귀하거나 명예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다양하고 이상한 가르침은 음식의 수준으로 격하됩니다. 이것은 설교자가 구약의 특성, 즉 제한된 효능과 범위의 외부적 규제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얻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새 언약의 기본적인 구별을 요약한 것입니다. 13:10에서 우리는 설교 전체의 주장과 권고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발견합니다.

청중은 다시 한번 예수의 제사장 중재로 얻은 비교할 수 없는 이점을 상기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종교적 식사에 대한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제시된다. 각 동물 희생의 어떤 부분을 누가 즐겼는지는 토라에 주의 깊게 설명되어 있으며, 제사장과 신의 특권은 질투스럽게 보호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존경받는 제사장조차도 올 수 없는 식탁에서 특권적인 자리를 차지하는데, 적어도 예수에 대한 자신의 의존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림자를 즐겼지만, 수신자들은 실제 사물을 즐겼으며, 이 특권을 덜한 선을 위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는 의도적으로 모호하여 그리스도의 사제 희생과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혜택에 대한 전체 논의를 상기시킵니다. 일부 해석자들은 저자가 성찬의 식탁, 주님의 만찬, 성찬례에 대해 말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식적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그들을 위해 쪼개지고 피가 그들을 위해 흘러지는 혜택에 참여하는 것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히브리서 설교의 중심 주제와 매우 밀접하게 공명합니다. 저자는 성찬례에 대한 그런 언급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지만, 초기 교회에서, 특히 바울의 서클에서 이 의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저자와 그의 수신자들이 자연스럽게 믿었던 곳, 그리고 설교 전체가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듣는 사람들이 얻는 혜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매력적인 공명을 일으킵니다.

저자들은 13:9-10에서 희생 동물과 신성한 식사와 의식, 또는 의식의 부족이 그를 속죄일 의식으로 되돌려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는 틀로 삼았다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1-14절에서 대제사장을 통해 속죄 제물로 성소로 옮겨진 이 동물들의 몸이 진영 밖에서 불태워진다는 것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성문 밖에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욕을 지고 진영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속죄일 제사의 몸은 사실 장막의 제사장들이 먹지 않고 완전히 태워버렸다. 대제사장이 피를 성소로 가져가는 동안, 그들은 속죄 제물로 바친 수소와 속죄 제물로 바친 염소를 가져갔는데, 그 피는 속죄를 위해 성소로 가져가서 속죄를 행한 다음, 레위기 16장 27절에 규정된 대로 진영 밖으로 가져가 불로 태워버렸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본질적으로 원형, 즉 속죄일 의식과 그 모든 세부 사항을 원형에서 일어나야 할 일, 즉 예수의 삶의 사건,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일어난 그의 십자가 처형의 세부 사항까지 명령으로 읽습니다. 레위기에서 속죄 제물의 시체를 처리하라는 규정은 진영 밖이나 성문 밖에서 예수가 죽으신 것이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행해진 제사라는 해석을 강화하며, 여기 12절에서 설교의 중심 주장을 상기시킵니다. 예수의 사심 없는 선행을 상기시키는 것은 13절에서 동등한 정도로 감사를 표하라는 부름으로 직접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영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듣는 자들은 예수님의 선물을 충성스럽고, 경건하고, 감사하는 수혜자가 되는 데 드는 비용을 움츠러들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께 지는 빛은 그들이 그분이 그들을 위해 하신 것처럼 진영을 떠나게 하고, 그분이 그들을 위해 욕을 참으신 것처럼 그분을 위해 욕을 참게 해야 한다.

이 소환은 저자가 설교 전반에 걸쳐 청중을 세상에 위치시키기 위해 사용한 더 큰 움직임의 은유에 부합합니다. 진영에서 나가는 것은 아브라함과 모세가 보여준 것처럼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자신의 집을 뒤로 하고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의 전제 조건이며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그들의 선구자로서 가신 영원한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영 밖의 장소는 유대 경전의 유산에서 모호한 곳입니다. 한편으로는 나병 환자가 거주하고, 더럽혀진 사람이 정화되기를 기다리며, 법을 어긴 사람이 처형되는 불결한 장소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진영 밖에 희생 제물을 태우고, 가장 두드러지게는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하는 깨끗한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사례를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7절에서 발견합니다. 인용하자면, 모세가 천막을 가지고 진영 밖,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천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이 진영에서 천막으로 갔습니다. 히브리서가 언급한 그리스도 추종자들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처한 진영 밖 여백의 장소는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성한 권능의 장소입니다.

13절에서 그리스도의 비난을 참는 것은 또한 모세가 11장 25절에서 더 큰 보상을 위해 기꺼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스도의 비난을 참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모세가 오래전에 보여준 것처럼 지혜롭고 고귀한 선택입니다. 그 비난은 결국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큰 부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합류하여 하나님의 아들딸의 영원한 기업에 들어간 사람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를 위해 상실과 비난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을 끈기 있게 견뎌내는 것은 궁극적으로 유리한 과정입니다. 저자가 말장난에서 듣는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듯이, 지속 가능한 도시, 즉 지금의 메뉴손 도시가 없는 것과 영원히 지속될 다가올 도시, 즉 멜루손 도시에 대한 기대를 대조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지위에 투자하는 것은 특히 하나님의

왕국, 즉 지속 가능한 왕국에서 자리를 잃는 것을 의미한다면, 어리석은
 예서가 했을 일입니다. 히브리서 13:15-16은 받은 은혜에 대한 공정한
 보답이라는 주제를 확장하는데, 특히 후원자에게 영예를 돌리고 그를
 기쁘게 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자는 바로 앞 구절, 12:28에 있는 감사에 대한 권고의 숭배적 의미 ,
 그리고 이 수용할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청중을 성별하신 예수에
 대한 설교의 중심 주장과 일치하여 숭배적 언어로 이를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 즉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리자. 선행과 나눔을 잊지 말라. 이런 종류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첫 번째 구절은 시편 50편 14절을 재맥락화하는데, 여기서 시편
 기자는 청중들에게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는데, 이는
 유대교에서 희생을 합리화하는 오랜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찬양,
 증언, 정의의 행위가 포함된 제사가 피 묻은 동물 희생을 대체합니다.
 사실 시편 50편 12절과 13절은 동물 희생에서 하나님께 음식과 음료를
 드리는 생각의 비합리성을 비판하면서 대신 찬양의 제사를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은 후원자의
 명예로운 평판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어 단어는 시편 전체에서 칠십인역 번역자들이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데 자주 사용했으며, 감사의 공적 성격을 증거, 즉 하나님의 관대함에
 대한 공적 증거로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설교자가 다루는 상황에서
 가슴 아픈 도전이며, 그들의 후원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증거의 공적
 차원을 강조합니다. 수신자들은 말과 행동으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좋고 그러한 요소에 충성하는 대가를 치르는 가치가 있다고 고백하도록
 부름을 받으며, 이로써 믿지 않는 이웃과의 이전 대결에서 특징이 되었던
 담대함, 실제로 담대한 증거를 유지합니다.

듣는 사람들은 또한 서로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봉사하고, 자원을 모으고,
 필요한 대로 서로를 도울 기회를 찾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한 희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16절에서 명령한 대로입니다. 여기서 저자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유대인의 성찰에 여전히 매우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구약의 예언자들을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아모스는 동물의 의식적 도살보다는 공정한 거래와 의로운 행동이 쏟아지기를 요구합니다. 이사야는 가난한 사람과 집 없는 사람을 돌보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으로 요구하며,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의 이익을 돌보라고 촉구하여 의식적 희생이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합니다.

듣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하나님께 보답할 수 없지만, 서로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관대함에 보답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자매와 형제에게 도움을 주는 것 사이의 이러한 연관성을 강조합니다. 수신자들은 그들이 해왔던 것처럼 성도들을 섬기는 데 부지런함을 보일 때마다 이러한 기쁜 제사를 드립니다. 저자는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듣는 자들은 고귀한 일을 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도 잊지 않으실 서로에게 투자하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저자가 6장 9절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불의하시어 여러분의 사랑과 봉사의 일을 잊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일들은 영원한 은혜를 받을 때까지 은혜의 원을 보존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은 다른 초기 기독교 서신의 마무리 패턴, 특히 베드로전서 5장과 로마서 15장에서 발견되는 패턴과 매우 유사합니다. 요청, 축복, 찬양, 소식, 여행 안내, 인사, 마지막 작별의 패턴은 그리스-로마 서신의 전형적인 마무리를 각색한 것입니다. 이 각색은 특히 축복과 찬양을 추가한 부분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는 초기 기독교 서신과 의사소통이 읽히는 전례적 배경에 특히 적합합니다.

히브리서 13:17은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거나 순종하라는 이전 권고의 일부로 들릴 수 있으며, 13:7에서 지도자들을 기억하라는 권고와 함께 포함됩니다. 복음을 처음 전한 이전 지도자들을 기억하라는 권고는 신앙에서 현재 지도자들과 교사들에게 복종하라는 권고로 균형을 이룹니다. 그러나 동일한 권고는 주제적으로도 마무리 내용과 연관되어 있으며, 수신자들이 지침을 구해야 할 지도자, 명예나 비난을 받아야 할 지도자, 즉 14, 24절에서처럼 지역 지도자들, 18, 19, 22절에서처럼 저자와 그의 팀, 20, 21절에서 축복하는 하나님, 심지어 23절에서 언급된 디모데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17절에서 "너희 인도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계산하려는 자들처럼 너희 영혼을 깨어 살피기 때문이다. 그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신음으로 하지 않게 하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기독교 리더십의 정신에 대해 무언가를 공유합니다. 리더는 자신의 책임에 지치지 않고 투자합니다. 사용된 동사는 후자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책임에 대해 잠을 잃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들의 위대한 목자에게 자신과 자신의 책임에 대해 설명할 사람들로써, 하느님께서 그들을 감독하신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러한 감독을 행사합니다. 저자는 그들의 지도자의 사역이 지도자들에게 슬픔의 원인이 된다면 공동체에 비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협력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특징이 되어야 하며, 전체의 이익을 위한 리더십과의 협력도 포함됩니다.

갈등에 쓰인 에너지는 교화와 외부의 다른 침식적 세력에 대한 저항에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입니다. 그런 다음 저자는 기도 요청을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일에 양심이 선하다고 확신하며, 고상하게 처신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빨리 너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너희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고 권고한다. 이 기도 요청은 저자가 4:14-16에서 말했듯이, 은혜의

보좌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도움의 한 예이다. 그리고 청중은 여기서 연설자 자신을 위해 적절한 도움을 구하도록 권고받는다. 연설자는 자신과 그의 팀, 사역의 파트너가 연설자와 그들의 기도를 허락하실 하나님 사이에, 그리고 연설자와 그가 중재를 요청하는 청중 사이에 장애물이 없음을 의미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한다.

이 기도 요청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확실히 가져다주신 큰 혜택, 즉 그들의 양심을 죄의 더러움에서 깨끗이 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이 기도 요청은 또한 설교자와 회중 사이에 사전 지식이 있다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여 내가 너희에게 빨리 회복되도록 하라고 썼습니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사전 관계가 있었고 설교자는 적어도 과거에 어느 시점에서 회중과 함께 있었습니다.

저자는 그 다음에 그의 회중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다음 구절과 함께 멀리서 허락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들의 위대한 목자를 죽음에서 이끌어 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여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너희 안에서 형성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에게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마지막 축복은 이전의 설명과 권고에서 나온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하나로 엮어냅니다. 첫째,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수의 죽음에서의 부활의 적극적인 원인으로 제시하고, 따라서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으로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이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신 것을 예수의 희생으로 확립된 언약을 받아들이신 표시로 말하는데, 이는 히브리서 7장에서 10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저자는 이사야 63장 11절에서 언어를 빌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땅에서 양치기로 일으키셨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암묵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으며, 예수를 지금 양의 위대한 목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서에서 예수에게 적용된 다른 단어로, 10:21에서 큰

대제사장으로 언급됩니다. 이것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의 이전 중재자들보다 예수가 우월하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모세에 대한 명확한 비교는 히브리서 3:1~6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를 목자로 묘사하는 것은 기독교 문화에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0:11~14장이나 베드로전서 2:25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에스겔 3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 담론이나 시편 23편에서 의로운 개인의 목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담론과 공명합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요청하는데,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중심 의제로 삼으신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시편 40절 8절을 히브리서 10 장 4-10절에 적용한 것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 내가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수신자들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자가 11장과 12장 전반에 걸쳐 청중들에게 제시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의 믿지 않는 이웃과 같은 인간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의 은사와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신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과 신의 뜻을 꾸준히 행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장될 것입니다. 그는 신의 은총의 중개자 또는 중재자라는 역할에 확고히 머물러 있습니다. 설교자가 이 축복의 결론에서 "영원히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쓸 때 누구를 언급하고 있는지 즉시 알 수 없습니다. 신입니까, 아니면 예수입니까? 이 관계 대명사와 예수라는 이름이 가깝기 때문에 그를 더 자연스럽게 언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설교자는 그의 권고 전반에 걸쳐 오히려 신중심적이었습니다. 12:28에서 경건한 예배를 통해 감사를 표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입니다. 13:15와 16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찬양, 고백, 봉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느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에 대한 영예의 수혜자이시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들에게 항상 중재자이심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제 22~25절에서 소식과 축복의 친숙한 요소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매와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제 권면의 말씀을 참아주시시오.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가 빨리 오면 내가 너희를 보리라. 너희의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거룩한 자들에게 인사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아, 너희에게 인사하라.

저자가 자신의 저작을 권면의 말로 지정한 것은 그것이 설교나 강론의 장르에 속한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실제로 그 용어는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우리는 이산 회당에서 설교를 지칭하는 데 사용된 문구를 발견합니다. 저자는 그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 메시지를 간략하게 유지했다고 확인합니다.

이 설교를 효과적이고 감정적으로 읽는 데 거의 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 발언을 위선적이라고 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디오크리투스 나 키케로의 연설 중 많은 것은 전달하는 데 세 배나 더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이 편지는 소식, 여행 계획, 인사, 그리고 공식적인 축복으로 끝납니다.

뉴스에 관한 한, 저자는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났다는 보고를 전하는데, 회중과 관련해서는 이미 오래된 뉴스일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났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바울의 여행 동반자이자 제자였던 디모데일 것입니다.

석방은 최근에 투옥되었음을 암시하는데, 이는 기독교 교단 지도자들이 자주 겪었던 상황입니다. 디모데의 이 투옥은 빌레몬서 1절에 언급된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투옥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약성경에서 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저자는 디모데가 현재 저자의 위치로 여행 중이어서 두

사람이 함께 회중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지만, 저자는 이 회중을 방문하고 싶어서 기다릴 수 없는 듯합니다. 따라서 수신자들은 이 지도자이자 교사가 돌아오기를 고대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룹의 인내를 위한 그의 자원을 직접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청중들에게 지도자들과 모든 거룩한 자들에게 인사하라고 요청하고, 24절에서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것은 설교자의 인사를 전체 회중에게 전하라는 공식적인 요청일 가능성이 크며, 설교가 그들에게 큰 소리로 읽히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서론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저자가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에게서 전한 인사는 수신자의 위치를 재구성하는 데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탈리아, 특히 로마의 교회와의 어떤 연관성을 시사하지만, 이 인사말이 이탈리아 외부의 회중에게 로마에 있는 저자와 함께 있는 이탈리아인에게서 온 것인지, 저자가 나중에 그곳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탈리아 외부에 있는 저자와 함께 있는 이탈리아인이 고향으로 인사를 보내는 것인지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자의 가능성이 더 큰 듯합니다. 여기서 특정 언어인 *hoi apotes* 이탈리아 출신의 사람들은 출신지보다는 분리된 장소를 선호합니다.

초기 사본에서 필사자들이 저자와 수신인의 위치를 만장일치로 제시하는 제목을 제공하려고 시도한 증거는 이 설교의 발상지로 이탈리아를 선호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운동의 세계적 또는 적어도 지역을 초월하는 본질을 상기시키는 이러한 작은 상기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 지역의 신자라도 자신이 훨씬 더 큰 무리의 일부이며 지역적 상황에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만큼 소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마음이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저자는 축복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으로 마무리합니다.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또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이것은 기독교 문학 전반에 걸쳐 의사소통의 마무리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다른 여러 서신에서. 공식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께서 신자들에게 은혜를 확보하신 방식이 매우 두드러진 주제였고, 교회에서의 인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머무르는 방법으로 홍보되었고, 이탈은 은혜에서 제외되는 길로 비난받았던 이 설교에 대한 독특하게 적절한 마무리입니다. 따라서 이 설교의 결론적 소망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던져버리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경험하는 길에서 계속 인내하라는 저자의 권고를 요약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은 덧붙인 생각이나 일련의 권고가 아니라 설교의 수사적 힘을 상당히 더합니다. 특히 13:1-16의 권고는 12:28의 명령과 함께 소개된 방식 때문에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 대한 적절한 감사의 응답을 구성하고 우리의 계산 대상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행보를 만드는 관행입니다.

저자는 또한 설교의 이 부분에서 각 신자가 이웃이 가하는 스트레스와 긴장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돕는 데 필요한 사회 공학에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인다.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영속하는 도시에 가까이 가는 길인 이미지도 상당한 수사적 무게를 지닌다. 이것은 저자가 청중에게 이 여정에서 인내하는 것을 유익한 전진 방법으로 여기도록 격려하는 또 다른 이미지이다.

진영에서 나가는 것은 그들의 선구자인 예수께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그들을 위해 개척한 패턴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영광 속에서의 회기로 돌아가는 길에 중간 기착지였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 진영에서 나가고 자신의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떠나면서, 그들 역시 첫째, 그들이 예수께 투자하신 것과 그들을 위해 책망을 감수하려는 그의 의지에 대해 적절하게 보답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둘째, 선구자가 이미 그들을 대신하여 도착한 끝에 도착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신 대로 예수께 보답하고,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건더내신 것의 작은 부분을 예수를 위해 건더내는 것을 공정한 보답의 필수 요소로 계속 장려합니다.

저자는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와 예수가 그들을 연결한 이스라엘의 신에 대한 감사의 공개 선언, 그리고 동료 신자를 위한 봉사와 지원의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적절한 감사 제물로 장려합니다. 다시 한번, 상호성의 핵심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이 설교의 전반적인 수사적 전략에 대해 나타납니다. 이 장에서 저자의 권고는 현대 기독교인에게 매우 직접적인 방식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 형제 자매의 사랑 의 가치를 높이 평가 하면서 형제 자매를 단순한 호칭 이상으로 여기도록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는 우리가 서로에 대한 투자, 동료 그리스도인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매 형제 자매를 위해 우리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에 점점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도록 촉구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해로운 생활 방식과 상황을 뒤로 하고 그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의 안식처가 될 수 있으며, 그들이 그 여정을 통해 그들을 이끌어 줄 사람들에게 온전히 투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그런 종류의 지원을 느끼려면 교회 내의 신자들이 서로 친척이 되고, 가족이 되는 데 따르는 의무와 상호 헌신을 감수하려는 사전 헌신이 필요합니다. 저자는 또한 다른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교회에서 환대를 실제적이고 규칙적인 관행으로 삼아 놀라운 수준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라고 촉구합니다. 자매와 형제에 대한 이러한 외향적인 사랑은 특히 가장 소외된 형제 자매에게 확대되어야 합니다.

저자는 자신의 회중에게 촉구하듯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마치 그들과 함께 갇힌 것처럼 기억하고, 그들의 피부처럼 학대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억압적인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을 위한 하나님의 세계적 가족의 정신을 채택하도록 촉구합니다

. 그들의 자매이자 형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들을 우리의 가족으로서 돌보는 것입니다.

저는 수년에 걸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시나리오에 대해 실제로 배우기를 얼마나 꺼리는지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매와 형제를 위한 가족이 되려면 우리의 국경 너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고 그들의 곤경을 마치 우리가 그들의 피부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즉각적인 관심사와 관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억압적인 환경에서 우리 가족을 지원하고 구제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투자할 수 있는 여러 장소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도, 그들의 곤경에 대한 침묵을 깨는 데 대한 헌신, 스스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지원을 동원하는 데 대한 헌신, 또는 그리스도인이 처형되는 경우, 그들이 남겨둔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많은 것을 포기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고, 또한 불의한 억압을 종식시키기 위한 로비 활동도 포함됩니다.

저자는 또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적 헌신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의 능력을 침식하는 행동 방침을 계속해서 식별하고 거부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그가 언급한 두 가지는 많은 현대 교회에서 계속해서 도전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부부의 충실성에 대한 도전으로, 결혼의 유대감을 인내를 위한 힘의 원천으로 만드는 것이지, 그 관계를 존중하고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배우자와 회중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자가 말했듯이, 이익에 대한 욕망, 즉 돈을 사랑하는 것은 헌신적인 제자도에 대한 심각한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은 신에 대한 충실함에 대한 진정한 도전입니다. 충분함을 인정하는 것은 만족으로 가는 길이며, 우리의 영혼, 교회, 세상을 위한 신의 의제를 추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하는 길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도록 교육받고 사회화된 사람들은 종종 무엇이 충분한지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이 세상의 안락함과 쾌락에

있어서 덜한 것으로 살아서 신이 무엇을 더 추구하고, 신의 눈에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볼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신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부를 사용하는 것은 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신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절실히 필요한 자매와 형제의 삶과 복지에 투자하는 것과 같이요? 아니면 우리가 부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돈에서 근본적인 안전을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예를 들어, 우리 자신을 위해 더 큰 헛간을 짓는 것처럼요? 저자는 또한 청중들에게 진영 밖으로 나가서 예수께 그의 책망을 지고 나아가라고 촉구합니다. 기독교가 관용되는 나라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책망을 지고 살도록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이익을 보는 불의에 항의할 때, 많은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편견에 맞설 때, 주변 사회가 소중히 여기는 재화에 대한 손실을 의미할 때, 저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가지 않는 곳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주의 깊게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 감당해야 할 비난에 대한 두려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서의 양육이 우리에게 가치 있다고 가르쳐 준 것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이 비난을 감당하게 할 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담대하게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를 영속하는 도시, 우리의 참된 집이자 목표에 더 가까이 데려가고 세상적 진영에서의 얽힘에서 더 멀리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저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야망과 우리 자신에 대한 계획의 최전선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는 우리에게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 거룩해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제사장적 의무가 되는 그러한 행위들을 취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의 청중들과 함께 하나님께 그분이

기뻐하시는 제사, 찬양의 제사,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입술의 열매를 계속 바치고, 또한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촉구하며, 이것들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행위로서 우리 삶과 의제의 중심으로 옮기라고 촉구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매와 형제를 섬기는 이러한 의무를 수행함에 따라 모든 삶을 잠재적으로 신성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중심에서 살아갑니다. 찬양의 희생,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입술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담대하게 말하도록 격려합니다. 심지어 우리 문화가 미묘하고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위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생각에 불편함을 느끼게 만든 공간에서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종교를 교회 문이나 집 문 뒤에 숨겨둔다면,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가 청중에게 강력히 권하지 않았던 것처럼, 즉 대담함, 두려움, 또는 공개 청문회에서 예수님과 관계에 대해 말할 의지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에 대한 반응은 또한 우리를 순종적인 봉사의 영역으로 이끕니다. 개신교 기독교인들은 종종 선행이 기독교 생활에 어떻게 들어맞는지에 특히 민감하며, 행위의 의로움을 조금이라도 풍기는 모든 것에 대해 항상 경계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다르고, 제 생각에는 더 잘 통합된 모델을 제공합니다.

선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에 대한 감사의 응답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선행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시작 행위인 선행은 하나님께 은총을 돌려드리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호성의 고리가 어디에서든 끊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춤의 아름다움이 훼손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광대함과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앞으로 베푸실 은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에 따라, 은혜를 갚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전한 충성으로 그분을 섬기려는 우리의 헌신도 깊어질 것입니다.

. 이러한 이유로 저자는 은혜를 신자의 마음을 고귀하고 유능하게 땅에 뿌리내리고, 그를 예수님의 신뢰성에 안전하게 만들고, 또한 그를 하나님의 집안의 믿음직한 일원으로 만드는 은혜라고 칭찬합니다. 이러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동안 우리는 히브리서 설교가 생겨난 배경에서 배울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여, 1세기 목사가 이웃들의 끊임없는 어려움과 상실에 직면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굳건하고 고정된 회중을 유지하려고 했던 방식을 분별하기 위해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주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일상생활의 바쁜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그분에게 합당한 것을 놓치지 않고,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소유하신 위대함을 놓치지 않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쏟아부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영원히 지속되는 삶으로 인도하신 모든 일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원래 독자에게 그랬듯이 이것을 우리 삶의 주요 초점으로 삼고, 매일 우리의 진로를 계획하는 출발점으로 삼아 떠나려가지 않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각인하고자 하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온전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관대함이 요구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대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데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눈앞에 감사를 핵심 가치로 두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어떻게 하면 명예를 지킬 수 있고, 충성심을 보일 수 있고,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행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봉사를 할 수 있을지,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고, 위대한 후원자에게 불충실함을 보일 수 있고, 그를 모욕하는 어떤 불순종을 행할 수 있을지 생각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감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 틀림없는 약속으로 우리 앞에 내놓으신 것에 대한 인식

때문에, 저자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를 보여주는 행동 경로를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저자가 우리에게 지울 수 없이 각인시키는 또 다른 것은 이 신앙의 여정에서 서로를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자신의 청중들에게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안전하게 기대할 수는 없지만, 많은 지점에서 우리는 이 여정에서 재집중하고, 교정하고, 정서적, 심지어 물질적 지원을 위해 자매와 형제에게 의지할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우리의 회중 생활에서 우리가 이러한 지지적이고 상호 투자하는 가족이 되는 데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촉구하여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으신 모든 것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